



여수 송기홍



영암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화순 박순철

여수시 소라면 가사리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

농식품부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공모 선정'



여수시는 소라면 가사리(현천 3 부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공모사 구) 마을이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

시는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2억 2500만 원 포함 총 사업비 5억 원을 이번 사업에 투입한다.

사업 내용은 친환경 공동육묘장, 농산물 집하장, 유기농업 체험·교육장 조성 등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지역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늘리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사리 마을은 벼 재배면적 43ha 중 39ha가 친환경인증을 받아 전라남도 유기농생태마을로 지정돼 있다.

여수=송기홍 기자

화순군 야구장 건립 속도 낸다...올 상반기 착공 예정



화순군이 야구장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화순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에 공인 규격의 야구 전용 구장의 첫 삽을 뜰 예정이다.

21일 화순군 야구장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윤영민 군의원·이하 추진위)는 화순교육지원청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추진위는 이날 회의에서 야구장 건립과 운영 계획, 야구장 주변 지역 주민 설명회와 중간 보고회 3회 이상 개최, 야구장 설계에 전문가 4인 이상이 참여하는 설계자문단 구성, 야구장 운영 관리 조례 제정 등 야구장 건립과 운영 계획 전반에 대한 논의했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화순군 야구장 건립에는 총 46억(도교육청 23억·화순군 23억) 원이 투입된다. 화순군 이양면에 있는 옛 이양 급능분교 부지와 그 주변 일부 토지를 매입해 공인 규격(18,000㎡)의 야구 구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야구장 건립 사업은 도교육청이

시행(공사)하고 운영은 화순군이 맡게 됐다. 그동안 도교육청과 화순군은 야구장 건립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 지난해 3월에는 야구장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새로 들어설 야구장이 화순 초·중·고 엘리트 체육 야구부의 우수 선수를 육성하고 동호인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며 "진지훈련과 각종 대회를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담양군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 위촉

입법시간 자문 및 관련 법규 해석·의회운영 자문역할 수행

담양군의회는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서우선 박사를 입법정책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지난해 10월 '담양군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입법시간에 대한 효율적인 자문을 위해 입법·정책 법률고

문을 위촉했으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지방법규의 제정 등에 관한 입법시간의 자문과 관련 법규해석 및 의안심사 자문 등을 수행한다.

서우선 박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심의관,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대표적

인 저서로는 지방의회운영방법론, 지방자치 의정사례집 등 다수의 도서를 출간했다.

김정오 의장은 "이번 고문 위촉을 통해 전문적인 입법정책에 대한 법률적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담양군의회 의원들이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입법시간과 정책 문제들의 자문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강진군, 중소기업 근무 청년 경제적 짐 준다

주거비·근속장려금 및 미래준비자금 지원

강진군은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만18세~만39세 청년들의 경제적 짐을 덜기 위해 청년주거지원비, 청년근속장려금 및 청년희망카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은 청년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장기근무유도 및 미래준비자금 지원 등 청년근로자의 지역정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주거지원비는 신규 사업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둔 전월세 거주 청년들에게 월 10만원씩 1년간

총 120만원을 지급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청년근속장려금은 관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5인~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해당된다. 올해에는 작년 대비 1년~2년 차 청년 지급액을 2배 늘렸으며 4년 차 청년 지급액을 신설 4년간 총 2,000만원을 지원해 기업의 고용유지가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창업비, 결혼자금 등 청년들이 미래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근로청년이 지정계좌에 매

월 10만원씩 3년간 적립하면 만기 시 두 배 금액과 별도 이자액을 지급한다.

임재용 일자리총괄과장은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근속장려금 및 미래희망카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함과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청년들이 살맛나는 강진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신청은 청년주거비 (2.28.목), 근속장려금 (3.6.수)까지 신청하면 된다.

강진=김영일 기자

진도군, 신상품 구기자 종묘 보급



병해충 강하고 다수확 가능

진도군은 병해충에 강하고 다수확이 가능한 진도 구기자를 육성해 신상품 2만5,000본을 보급하고 있다.

이번에 보급하는 신상품은 지난 2017년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 등록을 완료한 '진보 1호'와 등록 추진 중인 '진보 2호'로 특화작목 실증시험포 시험을 마친 우수한 품종이다.

신상품 진도 구기자 '진보 1호'는 재래종에 비해 탄저병 등 저항성이 강해 초기 생육과 착과가 안정적으로 다수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베타인 성분이 타 품종에 비해 높아 고기능성 품종으로 기대된다.

또 진도 구기자 '진보 2호'는 흑응에, 탄저병 등 병해충에 매우 강하

며, 후기 수확량이 많은 다수확 고기능성 품종이다.

진도군은 고품질 명품 진도 구기자를 확대·생산해 농가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자동개폐형 시설하우스 구기자 비닐 하우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진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구기자 재배농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상품 진도 구기자의 특성과 종묘 보관 방법, 다수확을 위한 재배기술 등 구기자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담당 관계자는 "고령 농업인의 노동력을 보완하고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다수확 품종 보급으로 농가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병해충에 강한 고품질의 구기자 품종과 재배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 구기자는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는 해양성 기후와 일조시간이 긴 자연적 조건으로 타 지역 구기자보다 영양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297농가가 38ha에서 55톤을 생산, 27여명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진도=조상용 기자

곡성군, 주민 스마트폰 활용교육 열기 '후끈'

곡성군이 주민 정보화교육의 일환으로 지난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이 지역 주민의 인기를 끌고 있다.

군은 주민들의 스마트폰 사용능력을 높여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3월 8일까지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폰 첫걸음, 스마트폰 비서 만들기, 스마트폰 사진 다루기 등 3개 과정이 개설되었으며,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평상시 공무원들의 전산 실무 교육장으로 활용되는 군청 3층 전산교육장을 개방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수강생들은 대부분 70~80대로 그동안 스마트폰 사용법을 몰라 전화 용도로만 사용하던 차였다.

그러던 차에 스마트폰 활용교육 소식에 많은 군민들이 앞다투어 교육을 신청했다.

뜨거운 신청 열기에 현재 수강 정원 20명을 넘는 25명 이상이 현재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곡성=김광휘 기자

영암군, 한눈에 볼수 있는 마을단위종합도면 제작·배부

자체 제작하여 2000만원 예산절감 효과

영암군은 토지의 위치, 지명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마을단위종합도면과 토지조서를 제작해 지난 2월 18일부터 관내 135개 자연마을과 읍·면사무소에 도면 216부, 토지조서 219권을 배부하였다.

이번에 배부하게 되는 마을단위종합도면과 토지조서는 농촌지역의 고령화에 따라 공공기관 저수지, 마을

회관 등 주요 시설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였으며, 마을주민 본인소유의 토지를 쉽게 찾고 관리 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영암군은 마을단위종합도면과 토지조서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제작하여 2,0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두었으며, 군민들이 군청이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마을에서

도면과 토지조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마을단위종합도면·토지조서는 군민들이 시간적·경제적 부담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며, 앞으로도 군민민족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영로우 시티
장성군

친환경 천연 창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밟강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물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취 관리 병행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